제10강 취미판단의 제3계기: 취미판단에서 고찰되는 목적의 관계(1)

(1교시)

◆ 진리와 보편성

※ 앞의 강의에서 살펴본 '진리'와 '보편성'에 관해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고, 『판단력 비판』(김상현 옮김, 책세상, 2005)을 p.41, **§10. 합목적성 일반에 관하여**를 읽기 시작한다.

▲ 진리

- 진리는 무규정적이다. (개념화할 수 없다)

※ 유토피아
■■ 근대적 유토피아 - 법칙과 질서가 완벽하게 지켜지는 사회
■■ 탈근대적 유토피아 - 다소 무질서하더라도 '아름다운' 사회

- 진리를 존재 그 자체의 본모습이라고 할 때,
  →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
    예술가적인 형태로 이 세계에 동참해야 한다.
    (과학자의 방식으로 세계를 개념화하는 것이 아니다.)

- 진리를 전파하는 문제
 : 개념화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면
  '공감'의 형태가 되어야 가능하다.
  (개념화된 내용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.)

▲ 단칭판단의 보편성

- 전칭판단(자연법칙 등)의 경우처럼 반복적으로 재연되는 사건은 아니지만
 모방할 만한 본보기를 제시하는 방식과 같은 보편성.

※ 하이데거는 "대지(가이아)는 우리의 영혼을 부르나 이성으로 재단된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" 진리를 은폐한다고 말한 바 있다.

▶ 참고자료 I
하이데거[Martin Heidegger, 1889~1976]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독일의 철학자.
주요저서: 『존재와 시간』, 『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』, 『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』, 『휴머니즘에 관하여』, 『숲 속의 길』, 『니체』
20세기 독일의 실존철학을 대표한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(2교시)

◆ **취미판단의 합목적성**

※『판단력 비판』을 p.41, **§10. 합목적성 일반에 관하여**부터 읽으며 '취미판단의 합목적성'에 관해 알아본다.

▲ **목적**

- *"목적이란 어떤 개념이 대상의 원인(그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실재적 근거)으로 간주되는 한에서의 그 개념의 대상을 말한다."* (p.41)
■■--- 즉, 욕구, 의도, 관심, **계획** 등이 개입되어 있는 상태에서
개념이 대상을 실현시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에만

▲ **합목적성**

- 합목적성: 개념이 그 대상에 대해 갖는 인과성
(개념이 정당한 원인이라면 '합목적적'이다.)

※ 관계범주 ■■ 실체성
■■ **인과성** ☜
■■ 상호성

- 취미판단의 합목적성 ■■ 형식적 합목적성
■■ **목적 없는 합목적성**
+ 자유로운 상상력과 지성의 조화

: 합목적성에는 목적이 전제되고, 목적에는 욕구나 의도가 전제된다.
따라서 '목적 없는 합목적성'이라는 말은 원래 성립할 수 없다.

그러나, 실제로는 아무런 목적, 욕구, 의도 없이 그러한 대상을 '아름다움'이라는 목적에 합목적적이라고 이해하는 경우 '목적 없는 합목적성'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다.
예) 아름다운 꽃
- '아름다운 모양'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처럼 아름답지만
사실 그 꽃이 그런 '의도'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.
⇒ 목적 없는 합목적성

▲ **반성적 판단력의 특징**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	지성	상상력
규정적 판단력	인과성	선후 관계 : 감각이 들어온 순서를 기준으로 종합
반성적 판단력	(목적의 인과성)	시간적인 선후 관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결합

예)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
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.
⇒ 목적 없는 합목적성의 구현. 아름다움.

▲ 자연미와 인공미

- 자연의 아름다움 :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대하 설명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.

- 예술작품의 아름다움 : 예술작품에는 일반적으로 작가의 '의도'가 들어가 있으므로 목적 없는 합목적성이 맞지 않는다.

- 칸트는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진정한 美로 여겼다.
예외) 예술작품이 자연처럼 이루어진 것
: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갖기 이전에 특별한 영감을 받아 완성한 경우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